

심리학과 사회학을 자유롭게 넘나든 '한국남자'에 관한 돈을새김

허연_ 매일경제신문 문화부 기자·시인

지를 탐구한 저작이다. 5살부터 12살까지 자신의 유년기를 대상으로 삼아 한국남자의 인성형성 과정을 꼼꼼히 탐구한 책이다. 저자는 한국남자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한국 특유의 가족문화와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징들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짚어 보여준다.

책 속에서 한국남자들은 '동굴 속 황제'다.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배웠지만 집에서는 알량한 황제 대접을 받고 자란 자들이다. '권위주의와 자기에 narcissism에 갇혀 주위를 제대로 살펴볼 수 없고 머리로는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신봉하면서도, 몸은 어린 시절 습득한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인간이다.

이 책이 심사위원 다수로부터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로 지목받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독창성이다. 프로이트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한국적 가족구조의 특수함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남자들의 인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명한 것 자체가 주목을 받기도 남음이 있었다. 이 책이 보기 드문 양서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사회를 형성하는 부조리함의 밑그림을 정확히 들추어냈다는 데 있다. '한국남자'들이 세상에 나가 어떻게 학교와 군대, 회사를 조직하고 또 어떻게 나라를 조직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 하면 계급을 만들고, 아주 쉽게 모든 행동을 폭력으로 진행시키고, 부질없는 명예와 열패감에 시달리고, 결국 동굴 속에서 죽어가는 한국 남자들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은 한국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심리학과 사회학을 자유롭게 넘나든 이 유려한 서정적 문체의 책은 국내 인문서들이 간혀 있는 '논문투'를 벗어난 훌륭한 저작이다. 경합에 올랐던 다른 양서들 역시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로 선정되기에 모자람이 없었지만 결국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은 '돈을새김'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특유의 시각과 빈틈없는 분석력 때문이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한국사회의 단면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현해 낸 역작이다. [출판저널]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미국영화에 가끔 등장하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보자. 평화로운 시골 농장에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쳐들어온다. 위기를 직감한 아버지는 가정과 농장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나선다. 집밖으로 나가기 전 아버지는 가족 모두를 한 명씩 숙연하게 끌어 안는다. 부인과 아이들과의 작별이 끝난 다음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는 숨겨 놓았던 장총을 하나 꺼내 겨우 7살밖에 안 된 사내아이에게 건네준다. 그 장면에서의 대사는 대충 이런 식이다.

“아빠가 없으니까, 네가 어머니와 누이들을 지켜라. 넌 남자니까.”

7살밖에 안 된 녀석은 나름대로 진지한 표정으로 장총을 건네받는다. 혼란 장면이지만 이 장면이 바로 '미국남자'와 '한국남자'의 차이를 말해주는 극명한 장면이다. 한국사회에서 비슷한 상황이 생겼다면 아마 장총은 어머니나 나이가 많은 누이에게 맡겨졌을 것이다. 대를 이을 어린 씨앗을 지키는 게 온 집안의 책무였을 테니까.

'올해의 책, 올해의 저자'로 선정된 《남자의 탄생》은 '한국남자'라고 불리는 종족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장해 왔는